개막식 오점 '사륜기' 문양 티셔츠 이름은 '문제의 소치'

소치 스타들의 독특한 개성 연출

이상화 화려하게 수놓은 네일아트 눈길
헬멧에 전화번호 적은 선수 휴대폰 불나
스켈레톤 선수들 헬멧엔 각양각색 장식

소치올림픽에 출전한 스타들의 독특한 개성연출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12일 스피드 스케이트 500m에서 올림픽 2연패에 성공한 이상화(25·서울시청)는 화려한 네일아트로 눈길을 끌었다.

이상화는 경기 뒤 응원해준 관중들을 향해 태극기와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이 순간 그녀의 손이 빛났다. 긴 손톱을 화려하게 수놓은 네일아트가 눈에 들어왔다.

네일아트는 이상화의 취미로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 SNS 등 다양한 공간을 통해 그녀의 네일아트가 공개됐고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러시아의 스노보드 대표선수인 알렉세이 소볼레프는 얼마 전 휴대전화가 불이 나는 해프닝을 경험했다.

그는 6일 열린 스노보드 예선 경기 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헬멧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섰다. 여자친구를 구할 목적이었다. 이 경기를 본 전 세계의 여성 팬들이 그에게 수천 개의 문자를 보냈고, 그의 휴대전화는 폭발하는 문자메시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음날 결국 고장이 나고 말았다.

스켈레톤 경기에서는 화려한 헬멧이 눈길을 끌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헬멧이지만 선수들에게는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장비가 됐다. 국기를 비롯해 독수리, 동물 등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캐릭터 헬멧은 경기를 보는 또 다른 재미가 됐다.

스키 슬로프스타일에 출전한 영국 선수는 국기 모양의 마우스피스를 착용하고 활짝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미국 뉴욕의 한 광고대행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는 개막식에서 문제를 일으킨 '오륜기'를 소재로 티셔츠를 판매해 화제가 됐다. 마이클 밀러가 제작한 '문제의 소치'라는 티셔츠는 개막식 당시 오륜기를 형상화한 불꽃 '사륜기'를 그려 넣었다. 이 티셔츠의 판매 가격은 22.95달러인데 오륜기 제작에 참여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약 14파운드)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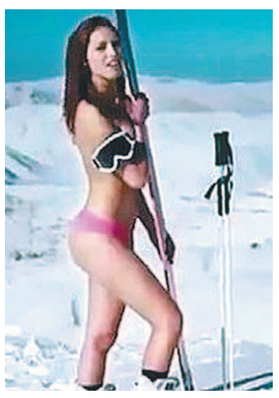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1 소치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성을 연출해 또 다른 볼거리를 주고 있다. 스켈레톤에 출전한 선수들의 독특한 헬멧. 2 국기가 그려진 마우스피스를 착용한 영국의 스키선수. 3 개막전 불꽃 오륜기 실수를 지적한 '사륜기' 티셔츠.
사진 | AP뉴시스·텔레그래프·야후스포츠

'앗, 3년 전 찍은 누드 사진이…'

레바논 여자 스키선수 캘린더 화보 인터넷 유출 곤혹



레바논 여자 알파인 스키 대표로 소치올림픽에 출전한 재키 샤문(22)이 누드 촬영으로 처벌위기에 놓였다.

12일(한국시간) 영국 데일리메일과 미국 ABC 등은 3년 전 재키 샤문이 레바논의 파라야산에서 찍은 캘린더 화보(사진)가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스트리아의 스키 달력에 사용될 목적으로 촬영된 사진과 영상 속에서 샤문은 눈밭을 배경으로 상반신을 벗고 하의만 입은 상태에서 스키로 가슴 부위를 가리고 있는 등 파격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에 파이잘 카라미 레바논 체육장관은 올림픽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샤문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샤문은 올림픽에 출전한 2명의 레바논 선수 중 한 명으로 이번이 두 번째 올림픽 출전이다.

샤문은 SNS를 통해 "현재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은 준비과정에서 찍은 것들로 공개되지 않을 것들이었다. 부디 내가 올림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는 사진을 퍼뜨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주영로 기자

대량 도살 위기 소치 유기견들 "살았다"

러시아 사업가가 기금 마련 유기견 보호소 설립
자원봉사자들도 입양…100마리 이상 목숨 건져

대량 도살 위기에 놓였던 러시아 소치의 유기견들에게 구세주가 나타났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면서 수백 마리의 유기견으로 골머리를 앓던 러시아가 개를 사랑하는 러시아 재벌과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걱정을 덜게 됐다.

11일(한국시간) AP통신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영국 공영방송 BBC 등 해외 언론은 "러시아의 사업가 올레그 데리파스카가 소치 지역에 유기견 보호소 '포보독(PovoDog)'을 긴급 설립해 운영한다"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회사의 대표인 올레그 데리파스카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기업가 중 한 사람. 그는 올림픽에 방해가 되는 유기견을 집단 도살하겠다는 정부의 뜻에 반대하며 보호소 설립을 결정했다. '포보독' 운영을 위해 1만5000달러(1600만원)를 기부했으며, 연말까지 5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해 소치 지방정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러시아 소치 지방정부는 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지난해 연말부터 유기견들이 개막식 리허설장과 선수촌 주변에까지 출몰하자 사설업체를 고용해 유기견 도살에 나섰다. 이 사실은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국제적인 논란을 몰고 온 바 있다.



동물구호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이 집단 도살 위기에 처한 러시아 소치의 유기견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을 펼치며 걱정 어린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소치(러시아) | AP·뉴시스

올레그 데리파스카 외에도 수십명의 자원봉사자들 역시 모스크바나 기타 지방 도시로 유기견을 입양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도 했다. 덕분에 현재까지 100마리가 넘는 유기견들이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레그 데리파스카는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가 처음 기른 개도 고향의 거리를 헤매던 유기견이었다. 5년 동안 나의 좋은 친구였다"며 유기견 보호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인도, 소치서 자국 국기 사용 가능

내부 문제로 박탈당했던 IOC 회원국 자격 회복

인도가 마침내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자국 국기를 들게 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1일(한국시간) 집행위원회를 열고 자격 정지 중이던 인도올림픽위원회(IOA)의 자격을 회복시켰다.

인도는 소치올림픽에 히만슈 타쿠르(알파인스키) 니딤 이크발(크로스컨트리) 샤이바 케샤발(루지) 등 3명의 선수를 파견했다. 그런데 인도선수단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대회 개막식 행사(8일)에 독립선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오륜기를 들고 입장했다. 사연은 이랬다. IOA가 내부 문제로 인해 최근까지 IOC로부터 무기한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한 탓이었다. 인도 정부가 2012년 12월 IOA 임원 선거에 부당 개입했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IOC는 스포츠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를 회원국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당시 결정을 내리며 IOA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장을 포함한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라고 요구했고, IOA는 9일 선거를 모두 마쳤다. 그 결과 나라야나 라마찬드란 국제스쿼시연맹(WSF) 회장이 새로운 IOA 수장에 선출됐고, 사무총장으로는 라리트 바노트를 뽑아 집행부 인적 구성을 끝마쳤다. 올림픽 기간 중 회원국에 대한 제재가 풀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IOC는 마크 아담스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인도가 IOC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며 자격을 회복시켰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를 희망 한다"고 전했다. 인도는 선수들에게 오륜기가 아닌 인도 국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힐 수 있게 됐고, 대회 폐막식은 물론 선수촌과 경기장에서도 국기를 내걸 수 있게 됐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밤의 활기를 불어넣는
야관문(夜關門)!

'야관문진액100' 국내최초 출시

국내산 100% 야관문 어린잎만으로 만든 '야관문진액'이 출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남성들의 어깨를 펴게 해줄 수 있는 그것, 많은 남성들이 바라는 것, 바로 '야관문진액100'이다.

야관문을 가지는 자가 밤을 지배한다!

야관문, 밤에 빗장을 열어준다?
이것을 먹은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는 여자는 밤마다 대문을 열어놓고 남자를 기다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야관문(夜關門)은 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대만 등지에 주로 분포하는 식물입니다.
대표적인 생리활성물질로는 여러 종류의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피니톨, 각종 미네랄, 아미노산, 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져 부부가 함께 드시면 건강과 부부사이, 체력증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장 힘이 좋다고 하여 대력왕으로도 불러
야관문은 원료들 중 힘이 가장 좋다고 하여 '대력왕'으로 불리기도 하며, 야관문을 먹은 여자들은 '천리광', 밤낮 주야로 문을 연다고 하여 '백관문', 남녀 모두에게 좋다고 하여 '음양초',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도 좋다는 '노우근' 등 야관문의 기능 만큼이나 불리는 이름도 많습니다.

50대에 늦둥이를 봤다는 강모씨
현대들어 말 못할 고민을 가진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야관문' 자랑이 대단한 강모씨. 50대 초반에 늦둥이를 보게 되었는데 '야관문'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을 먹은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는 여자는 밤마다 대문을 열어놓고 남자를 기다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야관문(夜關門)

옛날엔 야관문의 기능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야관문을 아는 사람들은 숨겨두고 먹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관문이 얼마나 좋았기에 숨겨두고 먹었을까요?
야관문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면, 야관문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탄닌 성분이 산화질소를 생성, 체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체력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성들의 어깨를 펴게 해 줄 수 있는 그것, 많은 남성들이 바라는 것, 바로 '야관문'입니다.

100% 국산으로 만든 '야관문 진액100'
'야관문 진액100' 제품은 야관문에 높은 압력을 가해 야관문의 식물체조직을 완전 극손상시켜 야관문의 유용성분들이 충분히 용출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남녀 누구나 거부감 없이 야관문의 힘을 느낄 수 있으며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1~2팩씩으로 밤의 활기를 불어넣는 야관문의 힘을 느껴보십시오.

www.buy1club.com

MBC 생방송 오늘아침, MBC 라디오스타,
JTBC 뉴스맨, MBN 천기누설 등
여러곳에 방송되어 화제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중년의 배우가 야관문으로 부부사이가 원만해지고 몸이 고등학생으로 돌아 간다고 말해 화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야관문(夜關門)'이다.

'야관문 진액 100' 출시



1박스(100ml×30팩) ~~45,000원~~ ▸ 38,000원 (택배비 별도)
2박스(100ml×60팩) ~~90,000원~~ ▸ 76,000원

검색창에 바이원클럽 을 검색하세요
www.buy1club.com 문의 1544-0247